

정호 스님 등 8명 동국대 이사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 스님은 11월 16일 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234회 이사회를 열고, 이사 8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오 스님 후임에 영담 스님 ▲장윤 스님 후임에 윤주사 주지 정호 스님 ▲황정규 이사 후임에 유광진 前 동국대 교수 ▲현성 스님 후임에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 ▲종상 스님 후임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영담 스님 후임에 조계종 문화국장 수인 스님 ▲오영교 총장 후임에 오영교 총장 ▲김재기 이사 후임에 전준표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이 선임됐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비공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지하 스님과 정호 스님을 추천했다. 김주일 기자

'청정교단 희망 한마당' 개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는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7년 정기총회 및 청정교단 희망 한마당'을 열고 교단 자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단자정 결의문을 통해 ▲자정운동의 생활화 ▲청정보시운동의 생활화 ▲1만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형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회 031387-54001 팩 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 (강령동 변호사)
 017-535-0685 (강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옷이 오르지 않고 힘 옷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울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연승회)



낙상사 원통보전 낙성식
 2005년 산불로 원통보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명)가 화마(火魔)의 상처를 딛고 11월 16일 원통보전 낙성식 및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1만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낙산사 재건(再建)을 축하했다. 사진은 복원된 원통보전의 현판제막식 모습. 양양 낙산사/글·사진=박재원 기자

“불교 왜곡보도 적극 대처를”

조계종 언론 모니터링·미디어팀 신설 등 검토 개신교·가톨릭 등 타종교도 언론 감시 활동중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불자라고 밝힌 그는 “공중과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사주와 역학 등을 주제로 다루면서 배경 화면으로 사찰에서 절하는 모습을 썼다”고 제보했다. 최근 ‘신정아 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일들로 불교계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 ‘불교=기복’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퍼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불자라면 TV나 신문, 잡지 등 언론에서 종교편향적인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분노를 느낄뿐 이를 어디에 제보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올해 초 ‘월정사 문화재 보수지원비 유용’을 보도한 MBC는 월정사 측이 강경 대응해 정정 보도를 했고, 스님을 우스갯거리로 삼은 유머를 게시한 문화일보 역시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개별 단체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왜곡보도나 불교편향 등은 대중 문화 넘어가기 십상이다.

최근 조계종이 불교계에 대한 왜곡보도를 이유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펼쳤으로써 불자들의 언론 종교편향, 왜곡보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신정아 사건으로 언론의 ‘맹공’을 맞은 조계종은 내년부터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와 함께 정기적인 언론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론 왜곡보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신속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대대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언론 모니터 및 분석보고, 불교미디어정책개발연구비 등 방송미디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획실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해 홍보인력을 충원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각 종파를 아우르는 대대론 기구를 갖추고 있다.

개신교는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가 언론모니터위원회를 두고 모니터링과 언론조사 등을 펼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실행위원회를 통해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이나 기

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다.

가톨릭은 올해 천주교중앙협의회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외신과 국내 기사, 신문·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교구 내에 자체 미디어담당을 두는 등 각 지역 교구별로 언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지역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했다.

불교계의 유일한 방송모니터링 단체인 사단법인 보리의 경우 1990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교육을 실시하고 방송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후원회 조직이 없어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김재일 이사장은 “불교계는 왜곡보도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질 뿐 지속적인 지원이나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국 신도교육이나 분발사 주지교육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언론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에서 전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불자들이 언론의 왜곡보도를 접했을 때는 보리 사무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당 언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언론의 왜곡보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02)745-5811 김갑진·여수령 기자

社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마륜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함하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권, 2만5000원)
-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앤씨)

※100부 한정 보급,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승산 스님 3주기 추모제 개최

11월 20일부터 8일간...사진전·다례제 등 마련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며 수많은 외국인 제자를 배출한 승산 스님이 입적한 지 벌써 3년이 됐다. 스님의 향훈을 기리는 3주기 추모행사가 외국인 제자들에 의해 다채롭게 마련된다.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추모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승산 스님의 출가 전 모습부터 출가 후 한국불교의 포교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열린 순회법회 법문 장면 사진과 세계 각국 언어로 출간된 법문집들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작은 사진 2000여장을 합쳐 승산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든 대형 합성사진이다. 전세계 80여 개 선원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합성한 의미있는 작품이다. 각 사진들에는 승산 스님이 생전에

각 선원을 방문해 수행 지도하는 모습과 외국인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전시회에서는 승산 스님 생전의 법문 모음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도 상영된다. 법문 CD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계룡산 무상사(주지 무심)에서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방한한 200여 외국인 제자들이 수행 정진한다. 또한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3주기 추모다례제가 열린다. 이번 다례제에서는 조계종 전체대회상 성수 스님이 법문한다.

무심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이방인인 외국인 수행자들에게 '오직 모를 뿐'이란 가르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환히 열어 주셨다"며 “스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번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사과말씀 드립니다 현대불교와 도지탈여행사가 공동 추진하는 라오스 톳투앙 축제 성지순례 가리오스 현지일정 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성원해 추진불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과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도지탈여행사 拜上

'07.12.19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한국종교지도자 대 국민 호소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 19 대통령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연이어 내년 4. 9에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의 선거문화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례적으로 선거를 치러오면서 우리나라 선거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연·학연·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끌려 투표하고,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선거가 불신과 반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의견이 소통되고 반영되어 화합과 발전의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자신의 세금과 삶의 터전을 헛되이 잠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정권·정책 등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을 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은 국가·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환경문제, 전쟁과 기아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12. 19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첫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
-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의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꼼꼼히 살펴보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2007. 11. 9

- | | |
|------------------------------------|-----------------------|
| 공동대표의장 지 관(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 공동대표 이성택(원불교교정원장) |
| 공동대표 이용규(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 공동대표 최근덕(유교성균관장) |
| 공동대표 김희중(천주교주교회의의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 | 공동대표 김동환(천도교교령) |
| | 공동대표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